

“조명 LED로 바꾸면 전력난 해소”

위기의 광산업...50개사 상생협력 간담회

칩·패키징 공동구매로 경쟁력 높이자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 의무화 시급

“전력난 해법은 원전 건립이 아니라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된다”(프로맥LED 정찬구 회장)

“칩·패키징을 공동구매해 해외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이노센코리아 최운웅 대표)

위기의 광산업계가 최근 광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복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8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5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해 광산업계의 애로와 위기 극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LED조명 소자인 칩과 패키징의 안정적 공급 대책, 공공시설물의 LED조명 설치, 업체간 기술·마케팅 협력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이노센코리아의 최운웅 대표는 “삼성과 LG전자가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역 LED업체에까지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국산이 안되면 대만·일본·중국에서라도 공동구매해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통신업체 파이퍼피아의 최영복 대표는 “한 회사가 모든 기술을 가질 수는 없다. 기술을 서로 나눠 가지면 윈-윈할 수 있다”고 정보 교류를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의 광통신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업체간 공동구매 수행 등 인적·기술적·마케팅 협력 기반을 조성해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팩 송규섭 대표도 “한 업체가 모든 라인업을 갖추는 건 낭비”라며 “업체간 강점을 공유하고 영업·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테크엔 이영섭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역량이 없어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못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마케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LED조명 업체의 위기는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때 LED조명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형(동부라이텍 부회장) 광산업진흥회 회장은 “전 세계에서 LED조명 시장이 가장 큰 곳은 일본이다. 특히 지난해 원전사태 이후 일본 LED조명 시장이 활짝 열렸다”며 “전력난 해결 방안으로 LED조명 설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글로벌 창업·취업 대전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글로벌 창업·취업 대전'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제조업 가동률 소폭 상승

3월보다 1.2%P 올라...경기 둔화는 여전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 광공업생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경기 둔화를 예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8.1%)보다 1.2%포인트 오른 79.3%를 기록했다.

4월 중 민간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0.1%)에 비해 1.0% 늘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4월 104에서 5월에는 105로 다소 호전됐다.

전월 대비 기준 전체 광공업생산도 3월 -2.9%에서 4월에는 0.9%로 호전됐다. 그러나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같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민간소비 등 일부 지표가 전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호전 정도가 미미했다. 경기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부분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1.5%)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된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기성은 건축부분의 부진이 심화한 탓에 -7.5%를 기록해 전월(-7.6%)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착공면적은 주거

용이 줄어 각각 -4.9%, -11.7%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4월 21억2000만달러에서 5월 24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 가운데 수출은 선박과 석유화학 부문이 기저효과 등 때문에 0.4% 감소했고, 수입은 전월(-0.2%)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1.2%에 달했다.

4월 중 노동시장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했지만 실업률은 하락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었다.

신규취업자는 3월 41만9000명에서 4월에는 45만5000명으로 전월보다 1.9% 늘었다. 4월중 실업률(계절조정)은 전월과 같은 3.4%에 달했다.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로 올해 2분기 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美의회 한국산 세탁기 덤핑판정 압박

강력 조사 촉구 서한

미국의 일부 연방 상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판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풀의 본사와 공장이 각각 위치한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2개 주(州) 상원의원 4명은 이달 초 존 브라이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덤핑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서한에 이름을 올린 상원의원은 칼 레빈 군사위원장, 데이브 스타브노 농업위원장, 셔로드 브라운

은행위원장 산하 금융기관·소비자보호 소위원회장 등 민주당 3명과 차기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톰 포트먼 의원 등 모두 상원 내에서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월풀과 같은 업체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상무부의 임무”라면서 “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 무역법 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 각종 부담 작년보다 늘었다

상의 1000곳 조사

올해 기업들의 부담이 작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작년(10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종합지수는 103이었다.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의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각종 의무에 대

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0부터 200까지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대 부문에 걸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 이는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갤럭시S3, LTE·3G모델 동시 예약가임

코스피지수

1,867.04 (+31.40)

코스닥지수

469.59 (+7.60)

금리 (국고채 3년)

3.32% (+0.07)

원·달러 환율

1,165.90원 (-9.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의 쿼드코어 스마트폰 ‘갤럭시S3’의 LTE 모델 및 3세대(3G)모델의 예약가임을 동시에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3G 모델은 이달 중, LTE 모델은 다음달에 각각 출시 예정이다.

3G 모델 예약판매가는 ‘올인원54’ 요금제를 선택하고 ‘스페셜 약정할인’ 2년에 가입하면 29만원대이다.

LTE 모델 가격은 미정이다. 갤럭시S3는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4개의 코어로 구성된 ‘쿼드코어’ 스

마트폰으로 빠른 애플리케이션 실행속도와 멀티태스킹 기능을 갖췄다.

고화질(HD)급 동영상 촬영을 시청할 수 있는 4.8인치 슈퍼아몰레드HD디스플레이와 20장 연속촬영이 가능한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올해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을 테마로, 다양한 신체인식 기능과 음성실행 기술 등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감성적인 성능도 갖췄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심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단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비새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 공장지역
● 완벽함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저시공임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창독대, 발래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틀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면 및 이미지 동봉시 개발비용이 감액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로 새로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함곡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데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쉽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봉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